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

김혜정 /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88년, 집안 사정으로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가야 했다. 고향에서의 시간은 — 쫓기듯 살아온 내 서울살이를 돌아보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고민케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 주었다. 그 무렵 동해안의 오지로 불리는 고향 어촌 마을에서 핵(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던 시골 마을에 들어선 핵발전소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마을 사람들을 부풀게 했다. 핵이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차단돼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뜻을 가진 젊은이들과 반핵운동을 시작했다. 그것이 내 운동하는 삶의 시작이었다.

외로운 길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의 말에, 반핵의 중요성에 대해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행복했다. 평생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1년간 고향 마을에서 반핵운동을 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고향 바닷가를 바라보며 다짐했던 환경과 사람을 지키는 운동을 향한 내 결심은 환경운동단체에서 직업 활동가로 사는 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뒤 나는 정신없이 살아왔다. 다행스럽게도 굶는 일은 없었으며 고향에서와 달리 내가 하는 일을 귀담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 않게 운동할 수 있었다.

환경운동을 하게 된 것을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을 하면서 가지는 최고의 행복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이다. 자신이

쓰는 돈을 쪼개어 회비를 내는 8만명이 넘는 회원들,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분들, 가족만을 위해 살기보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나오는 주부회원들, 하루 종일 운전대에 앉아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마다 않는 택시기사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보면 세상은 살만하다고 느끼게 된다.

며칠 전 미국의 테러보복전쟁을 반대하는 반전평화대회에 한 여성회원이,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손에 잡고 참석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죄 없이 죽어갈 어린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란 바로 남의 위해 올 수 있는 마음과 나와 아무 관계 없을지도 모르는 지구 어느 곳에서 고통 당하는 약자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세일 것이다.

늘 그런 이들과 만나고 사는 삶은 복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가는 어린이를 위해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을 걱정하고 공익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거기에서 우리 시대의 희망을 본다. 내가 가야할 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힘도 얻는다.

평화가 뿌리내리고 자연의 못 생명들이 사람과 똑같은 가치 속에 상생하는 세상이, 설령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혼자 걸음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행복한 삶이란 그러므로 가야할 삶의 바른 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로운 것이다. PPFK